“스승이 주신 ‘아리랑 변주곡’ 15년만의 초연 황홀한 경험”

비올리스트 임경애씨 伊 체르보 국제음악캠프서 독일 프뢸 교수와 협연

지난해 말 광주시립교향악단에서 정년 퇴임한 비올리스트 임경애(57·모차르트콩쿠르 광주지역본부장)씨는 최근 행복한 경험을 했다. 4월초 이탈리아 모차르트 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탈리아 체르보 국제음악캠프에서 독일 피아니스트 롤란드 프뢸(Roland Proll) 교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아리랑 변주곡’을 초연해서다.

이 곡은 조선대 교수 출신으로 유럽에서 10여년간 활동한 후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 모차르트 콩쿠르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피터 김(김하림) 교수가 제자였던 그녀를 위해 작곡한 작품이다.

이번 연주는 곡이 완성된 지 15년만에 이루어졌다. 김 교수는 곡을 완성한 후 프뢸 교수와 함께 광주를 찾았지만 당시 임 씨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후 임씨가 시향 활동과 제자 레슨 등으로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하면서 연주는 미뤄졌고, 지난해 임씨가 창단 때부터 활동했던 시향을 떠나면서 연주가 성사됐다

임 씨는 이번 캠프에서 이탈리아 모차르트협회 회장인 피아니스트 로베르토 이소글리오(Roberto Issoglio) 등과 함께 슈베르트의 ‘송어’도 들려줬다.

“선생님하고는 고등학교 때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저를 위한 곡을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하죠. 언젠가는 꼭 연주를 해야지 싶었는데, 한국의 정서가 담긴 곡을 이탈리아에서 연주를 하게 돼 참 좋았어요. 무엇보다 캠프에 참가하면서 정말 좋은 연주를 많이 듣고 많은 연주자들과 교류할 수 있어 황홀한 경험이었죠.”

임 씨는 프뢸 교수의 제안으로 내년 3월 한국에서도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아리랑 변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

‘남도의 봄’이 날 붙잡더군

▲왼쪽 위부터 ‘수아’, ‘백련사 문화결사’, ‘해남 미황사’.

박재동 화백, ‘풍류 남도-동백매화답사’ 참여 중 강진 백련사 등 경치에 반해 눌러앉아 그림 그려 해남 행촌미술관서 5월 1일부터 한달 간 전시회

남도의 봄이 만화가 박재동 화백의 발길을 붙잡았다. 해남 산이면 매화와 미황사, 강진 백련사 동백 등 박 화백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쉽사리 발길을 떼지 못했다. 결국 해남에 짐을 풀고 며칠을 더 눌러앉아 자연을 벗삼아 그림을 그렸다.

박 화백의 전시가 오는 5월1일부터 한 달간 ‘남도만인화(南道萬人花)’를 주제로 행촌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국·이사 재단) 해남 행촌미술관에서 열린다.

박 화백은 지난 3월20~21일 재단이 진행한 ‘동백매화답사’에 참여했다. 이 답사는 재단의 ‘2015 풍류남도 ART프로젝트_동백매화 꽃피는 남도를 걷고 그리다’ 사업이 전남문화예술재단 ‘2015 남도특성화기획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진행됐다. 박 화백을 비롯해 김기라·김억·김범석·박문종·서용선·송필용·육근병·윤석남·윤남웅·이이남·이수경·정지현·하성흡·허진 등 모두 30명의 작가들이 함께했다.

답사는 해남군 문내면 임하도와 산이면 매실농원, 강진 백련사, 달마산 미황사, 녹우당, 대흥사 등을 둘러보고 서울로 향하는 일정이었다. 박 화백은 가는 곳마다 아쉬움을 쏟아냈다.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작품에 담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매실농원에서는 농원을 하얗게 뒤덮은 매화에 시선을 빼앗겼고, 강진 백련사에서는 만개한 동백과 사람, 차향기에 취해서 그랬다. 결국 박 화백은 남도의 매력에 빠져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싣지 못했다. 그리고 미황사 등에서 흐르는 봄을 아쉬워하며 80여 점의 작품을 그렸다.

시사만화가였던 박 화백은 평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즐겨 그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이번에도 답사를 지원한 백련사 일담스님과 미황사 금강스님을 비롯해 강진과 해남 사람들, 참여했던 작가들을 모두 화첩에 담았다.

늦은 밤 백련사에서 예술가들이 빼곡히 앉아 차 마시며 다산과 혜장선사의 우정, 원묘국사의 ‘백련결사’를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 함께한 예술가들의 ‘백련사 문화결사’를 그렸다. 동백이 만개한 백련사 동백숲과 다산이 걸었던 오솔길을 그리기도 했다.

달마산 미황사의 고색창연한 대웅전, 미황사 스님을 닮은 단아한 선비 같은 매화, 미황사 뒤뜰에 수줍게 숨은 애기동백도 작품에 담겼다. 덜컥 예정에도 없던 전시회까지 열게 됐다. 전시장에서는 박 화백이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담았던 남도 사람들과 서정적인 풍광들이 펼쳐진다. 수년 전 해남 등 남도 일대의 사람들을 담았던 작품도 이번 전시를 위해 내놓았다.

전시 개막식이 열리는 5월1일에는 ‘만화가 박재동과의 특별한 데이트’ 행사가 오후 3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그림판’이라는 만평을 그렸던 박 화백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재직 중이다.

한편 이번 전시 이후에도 ‘2015 풍류남도 ART프로젝트’ 일환으로 답사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오는 8월 말까지 이어진다.

오는 6월5일부터 열리는 ‘35人의 동백매화화첩 펼쳐보기’전에는 답사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화첩에 그린 드로잉 작품 5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마지막 결과 전시인 ‘풍류남도’전은 7월24일부터 열린다. 드로잉을 바탕으로 작가들이 최종 완성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에 앞서 행촌미술관은 오는 5월9일 ‘차와 풍류답사’를 주제로 두 번째 답사를 진행한다. 다례제가 열리는 백련사와 해남 윤씨 종가인 녹우당, 대흥사 등을 둘러보게 된다. 문의 010-3052-587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송재진 시인 ‘방정환문학상’

방정환문학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5회 방정환문학상 수상자에 광주일보 신춘문예(1983년·‘하느님의 꽃밭’) 출신 송재진〈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동시조집 ‘아빠 무릎에 앉는 햇살’.

방정환문학상은 아동문학가 소파 방정환(1888~1931)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생의 어린이 사랑과 문학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기 위해 1991년 제정됐다.

송 시인은 “적잖은 세월을 시와 함께하는 동안 안목은 얼마쯤 높아졌을지 모르나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 상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빚지지 않도록 명실상부한 시인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시인은 한국아동문학인상(1986)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동시집 ‘하느님의 꽃밭’(1985), ‘회초리도 아프대’(2006)등을 펴냈다.

한편 동화부문은 1998년 계몽아동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함영연 작가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작품집 ‘가자, 고구려로!’. 시상식은 5월 16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다. /박성천기자 skypark@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 ·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흑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오피스텔부지적합)
- 서구 마륵동 대지 701㎡ 매10억
- 서구 세하동 생산녹지 답 2,400㎡ 매 5.7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해남바다 접한 펜션주택지
▶주소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면적 :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매가 : 평당 15만원
▶지역 :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숲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해남 귀농 최고의 펜션
▶연소득 : 5천만원 (장부확인가능)
▶장소 : 해남읍서 대흥사 가는길목
▶면적 : 1838평방미터 (대+전)
▶건평 : 주택4동+캠핑카
▶매가 : 4억 5천 (절충가능)
010-5267-7225

제주도 환상의 땅
♧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
▶주소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면적 : 3071평방미터 (계획관리)
▶매가 : 9천만원
▶주소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면적 : 4509평방미터
▶매가 : 6억5천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식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유한메디카 글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o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 · 금융사기 / 성폭행 · 성추행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